

'2005 Live In Pocheon' 공연

반월아트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자 초청 온정 나뉨

포천반월아트홀(소장 배상택)은 지난 26일 2005년 봄을 맞아 지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대형 콘서트 '2005 Live In Pocheon'을 개최했다.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가진 이번 공연은 전 직스키스 멤버이며 J-Walk 리더인 김재덕과 KBS 1TV 드라마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활약중인 빈우가 진행을 보였으며, ▶이재진 ▶켄 ▶플라워(고유진) ▶BMK ▶휘성 ▶비바소울 ▶Soul group 'G-fla' ▶데프콘 ▶조은 ▶하유선(하소연) ▶상상밴드 등 20여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2년 반만에 귀향한 가수 '별'은 넌윤과과의 피쳐링 신곡인 '인부'를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번 무대에서 함께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반월아트홀 관계자는 "포천하면

산정호수, 포천이동갈비, 이동막걸리 등 전통문화와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기에 포천은 타지역에 비해 문화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월아트홀이 포천지역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한 이번 공연은 지역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자 초청" 등을 통해 포천 최초의 대형콘서트의 의미를 살렸다"며 "이번 공연이 포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시설 전문한 상황으로 인근 청소년 환경 개선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연예전문 케이블 방송사인 ETN이 기획하였으며 오는 4월 9일과 15일에 각각 제1부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공연된 '2005 Live In Pocheon'을 보기위해 많은 포천시민들이 참석했다.

와 2부로 나뉘어 방송될 예정이다. 전민원의 예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배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 박영실

"소리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오세요"

영평팔경을 소재로 한 '소리극' 창작 계획

지난해 3월16일 경기소리의 진수를 보급하기 위해 창립한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1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포천지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영실(사진) 지부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보유자 목계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리보존회는 과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제1호 임정란 보유자에 의해 전승,보존되고 있다. 포천지부는 지난해 영평팔경을 소재로 한 소리극을 창작기로 하고 포천시와 경기문화재단에 예산지원신청을 했다. 포천시가 상당한 본예산을 포천시의회가 삭감하여 영평팔경을 소재로 한 소리극의 탄생을 절망적이었으나 다행히 경기문화재단에서 900만원을 출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박 지부장은 "영평팔경은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작품을 내용을 소재로 한 소리극의 탄생은 포천의 새로운 문화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따라서 "포천시가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영평팔경을 소재로 한 '소리극' 창작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10여차례의 공연을 통해 회원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에 나설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 지부장은 "포천시가 공연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1년동안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에 지원되는 포천시 예산은 일동 호 한마당 단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여 포천사회가 전통예술은 물론이고 현대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한다.

박 지부장은 포천시민들이 경기도소리 한마당쯤은 알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소리를 많은 시민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박 지부장은 포천시 신읍동 47-31번지에 위치한



박영실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

고 있는 지부사무실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소리전승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또 회원가입조건은 소리를 좋아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천반월아트홀에 가는 기대에 대해 박 지부장은 "전통공연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며 "아외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무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잊혀져가는 전통의 소리를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박 지부장의 노력위에 포천시의 보다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아시아미술제 기획소위원회 위원위촉

현장방문 등 세부실행계획 협의



지난 24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포천아시아미술제 기획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기획담당관실 회의실에서 포천아시아미술제 기획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소위원회 위원위촉은 전시 및 야외 부대행사 등 미술제 전반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위원은 ▶김찬동 문예진흥원 미술전문화원(위원장, 심포지엄 담당)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장/호남대학교수(본전시 담당) ▶유진규 춘천미술축제총감독(전야제 오픈닝, 공연 담당) ▶윤재갑

대안공간 루프 대표 ▶송운창 21세 기청년작가 협회장(깃발예술제 담당) ▶김동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대동 미래자연도시연구원 이사장 7명이다. 한편 위촉식 후 위원들은 포천반월아트홀, 청성공원, 폐석산아트밸리 등 행사가 치러질 현장을 방문하고 전시 및 야외 부대행사 세부실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과 산정호수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용연서원 춘계 제향

한음 이덕형과 용주 조경 선생 추모

신북면 신령리에 위치한 용연서원(원장 양기선)은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포천시 황용선 부시장을 비롯 유관기관단체 및 유림,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전에서 춘계 제향을 실시했다.

이날 제향은 용연서원에 모신 한음 이덕형과 용주 조경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의식으로 약 1시간 동안 개회식 및 제향 의식이 치러졌다.

용연서원은 조선 숙종 17년(1691년) 건립하였으며 숙종 18년(1692년) 사액 되었으며, 1970년 8월 27

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고 시설물로는 본전 1동, 강당 1동, 내·외삼문 1동 있다.

한편 이덕형(1561~1613) 선생은 선조 13년(1580년) 문과에 급제한 후 등용되었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으며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또한 조경(1586~1669) 선생은 선조 4년(1612년) 사마시에 합격 후 등용되었으며 병자호란 때 시간으로 적화를 주장하였으며 대제학,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화 '그때 그 사람들' 포천반월아트홀서 상영

2005년 초 법원의 사제상영 결정으로 제한의 주목을 받은 백운식, 한석규 주연의 '그때 그 사람들'이 28~30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상영됐다.

이 영화는 28일과 29일에는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차례, 그리고 30일에는 오후 7시 30분 한차례 상영됐다. 헬기에 자리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대안공간 루프 대표 ▶송운창 21세 기청년작가 협회장(깃발예술제 담당) ▶김동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대동 미래자연도시연구원 이사장 7명이다.

한편 위촉식 후 위원들은 포천반월아트홀, 청성공원, 폐석산아트밸리 등 행사가 치러질 현장을 방문하고 전시 및 야외 부대행사 세부실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과 산정호수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황용선 포천시부시장이 용연서원에서 제향을 하고 있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7)

동농문학



고대 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적 인간들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근대적 사상을 깔고 있어 이인직(李人植)과 더불어 '신소설' 확립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분이 바로 동농 이해조(東農 李海潮) 선생이다. 내고향 포천의 근대 대표적 소설가로 포천에서 탄생하시어 신북면 신령리에 묘가 있다. 요즘은 대전대학교 홍을표 교수(역사학 전공)가 회장으로 이해조 문화회가 창립, 뜨거운 햇살처럼 '이해조 문학'의 재조명이 이루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해조님의 또 다른 호는 이열재(怡悅齋)이고, 필명은 우산거사(牛山居士)·선음자(善飮子)·

'춘외준(1912)', '구외산(1912)', '구마검(1908)', '화세계(1911)', '원양도(1911)', '봉선화(1913)' 등이 있으며 후기 작품으로는 '화의 혈(花의 血)', '탄금대' 등이 있다. 본격적인 창작활동은 1910년 '자유종'을 발표하면서라 볼 수 있다. 소설작품의 특징으로는 구어체의 특징과 인물 성격의 사실적 묘사가 기사 생활에서 오는 보고체 문장특성 등이 두드러지며 특히 고전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적 인간들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근대적 사상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직과 더불어 신소설확립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자유종'은 봉건제도에 비판을 가한 정치적 개혁의식이 뚜렷한 작품이다. '여성지위향상', '신교육개혁', '사회풍속개량' 등이 형식적인 면의 토론 소설로서 신소설 양식을 갖추면서 잘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신타파', '가정비극', '남녀이합' 등 계몽성도 볼 수 있는 기타 작품이 매우 시대적 성격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1869년(고종 6년)~1927년의 생애와 이인직(1862년~1916년)의 생애를 비교하여 보면 같은 시대의 문학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인직의 최초의 창작 '혈의 누(1906년)'가 발표된지 4년 뒤 이 있다. 본격적인 창작활동은 1910년 '자유종'을 발표하면서라 볼 수 있다. 소설작품의 특징으로는 구어체의 특징과 인물 성격의 사실적 묘사가 기사 생활에서 오는 보고체 문장특성 등이 두드러지며 특히 고전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적 인간들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근대적 사상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직과 더불어 신소설확립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자유종'은 봉건제도에 비판을 가한 정치적 개혁의식이 뚜렷한 작품이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자/유/기/고



조양 이재성 한국문인협회 연천지회 사무국장

사람은 누구나 삶의 촛불이 다 녹아서 고요히 꺼질 때 까지 無病長壽(무병장수)하길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천명)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동물들은 성장의 나이의 5~6배를 산다. 그렇다면 인생 내 그곳에 남치는 물은 이 미 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진짜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살아가는 10년 肉身(육신)의 지(지탱)하기 어렵고 死後(사후)에

人生(인생)은 150년의 천수를 타고 났으나 제 탓으로 까먹는다

100년 묘지 維持(유지)하기 어렵 다하거늘 어찌 150세를 살 수 있 으라 하겠지만 쏘련의 사파리 미 스리 모프는 168세를 누렸고 영 국의 토마스 팔과 인도의 한 바 바리는 152세의 장수를 누렸다는 기록도 있다.

무릇, 병은 듣기 전에 고쳐야 하며 남이 고치는 것보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 나으며 병을 고치기 앞서 마음을 고쳐야 되리라. 현대병의 80%가 스트레스에 의한 병이라 했던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근본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공수래공수거 인생 내 그곳에 남치는 물은 이 미 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진짜로 푸른 하늘이 보인다.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살아가는 10년 肉身(육신)의 지(지탱)하기 어렵고 死後(사후)에

깨달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분수 깃 췌(선)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좋은 점은 칭찬하고 나쁜 점은 감사하며 모든 운명을 낙천적으로 받아들이어 감정의 奴隸(노예)가 되지 않을 때 마음의 평화와 함께 육신의 건강이 유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한들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으며 천지를 단 존틀 나와 바랄 수 있으리요. 은행에 저축 한 수도 없고, 병장교에 보관할 수도 없는 찰나뿐인 소중한 오늘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 식하지 않는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心身(심신)을 不斷(부단)히 研鍊(연마)하여 구름에 달 가듯이 150세 고지를 향하여 다함 께 突進(돌진)하자.

노오란 자전거가 꽃향기 길을 따라서



김영송 1957년 전북출생 회사원

노오란자전거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셋노란 봄소녀가 타고 있어요 신이났는지 휘~익휘~익 휘피람도 불고 있습니다 두버퀴살에는 이쁜색의 나비넥타이 모험이 머리에는 꼬리방울달린 노오란 모자가 수정같은 농동자위엔 파이란 선글라스가 이기시름을 닮은 고운목달미에는 무지개빛 오색빛 머플러가 껍집은 두~고운손에는 두마리의 호랑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길가엔 민들레꽃이 실바람에 실랑실랑 고개를 흔들며 봄소녀의 즐거움에 답하는 것 같았지요 쪽뽀는 두더리가 교차하면서 나는 살결의 향기로운 비람소리는 보노이의 마음을 일곱년장이를 집에서 사랑하는 공주가 미술학대머에게 요술에 걸린듯 이상아룩한 황홀한 세계로 인도하였고 아기천사의 고운발가락같은 어여쁜발은 두레달은 포옹을 하듯이 서로의 가슴에다 밀착을 하며 스르륵 스르륵 봄꽃향기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노오란자전거가 꽃향기길을 따라서 봄꽃소녀를 실고 지금 저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봄꽃소녀 만나러 저 지금 갑니다